

# 도시가계의 재무관리와 재정만족도의 영향변수에 관한 연구\*

## The Factors Affecting Financial Management and Financial Satisfaction of Housewives in Seoul\*

동국대학교 가정교육과

강사 이상협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Lecturer : Sanghyup Lee

### ◁ 목 차 ▷

I. 서론	IV. 결과 및 논의
II. 이론적 배경	V. 결론 및 제언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among selected socioeconomic variables(age, household income, education duration; perceived income adequacy, gap between living standards and level), financial management and financial satisfaction. The sample size is 298 interviewee, and the unit of analysis is household in Seoul.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that perceived income adequacy is significantly related to financial management. And perceived income adequacy, household income, gap between living standards and level, and age are significantly related to financial satisfaction. Although perceived income has an indirect effect on financial through financial management, but indirect effect is too small, financial management is not examined as intervening variable.

### I. 서론

가정자원 중에서 재정자원은 가계의 현재 뿐 아니라 미래의 재정적인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서, 많은 연구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Hafstrom & Dunsing, 1973; Davis, Helmick,

1985; Titus, Fanslow, Hira, 1989; Mugenda, Hira, Fanslow, 1990; 김순미, 1993; 고보선, 이영호, 1995; 김정숙, 1996 등), 그 이유는 바로 가계 경제활동의 궁극적 목표가 가계구성원의 재정적 복지의 실현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정적 복지추구의 경제활동 과정에서 가계가 직면하는 재정문제는 크게 두가지

\*본 연구는 1996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박사후 연구과제로 수행된 것임.

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가족원의 요구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시간, 에너지 및 화폐 등의 자원 부족문제이고 둘째는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방법에 관한 문제이다(Hefferan, 1982; Varcoe, 1990). 자원이 부족한 가계는 현재의 소비수요와 재정적 목표간의 평형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며, 또 한편으로는 미래의 재정적 위험을 감소시키려 한다. 즉 가계는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경제적 복지향상을 실현하기 위해 재정자원을 합리적으로 분배하고 관리방법을 개선하려고 한다. 현재의 소비효용의 극대화를 위하여 안정지향적 재무관리를, 그리고 미래의 소비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성장지향적 재무관리를 유도하게 된다(Beutler, Owen & Hefferan, 1988; Danes, Rettig & Bauer, 1991).

결국 가계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재정적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재무관리가 필요로되며 소득이 줄거나 실업, 물가상승 등의 재정적 곤란을 경험하게 되는 시기에는 더욱 합리적인 재무관리가 필요하다.

사실상 IMF체제이후 우리나라의 많은 가계들은 그들이 보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의 가치가 변화되거나 자원의 양적인 면에서도 큰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환율인상에 따른 수입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가계가 체감하고 있는 물가상승률은 훨씬 높은 실정이며 정부의 재정적자 확충을 위한 조세의 부담까지 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 밖에도 가계를 둘러싸고 있는 경제상황의 불투명 속에서 가장의 실직으로 인한 실질소득의 감소, 장래 소득의 불확실성과 자산가치의 하락 등의 원인으로 가계는 소득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재무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가계의 재정적 위기를 가계의 차원에서 대응해야 하는 현재상황에서 우리나라 도시 가계는 과연 어떠한 재무관리를 하고 있으며 현재의 재정상태에 대해 어느정도 만족하고 있는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재무관리와 재정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현재의 재정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미래의 재정적 위치를 예측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가계의 재정적 목표설정과 재정문제의 해결, 그리고 미래 재무계획을 위한 대책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매년 증가하던 도시 근로자들의 월평균 소득이 IMF체제이후 1998년 1분기 중 처음으로 감소추세로 나타났으며(통계청, 1998) 이 시기에 경제생활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재무관리가 절실히 요구된다. 그러므로 이들의 재무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를 파악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지금까지 수행되었던 연구들은 대부분 안정적인 경기상황의 시기에서 수행된 연구라고 볼 때, 기존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봄으로써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가까운 장래의 가계재정을 예측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

또한 많은 연구들이 재정만족도나 재정상태만족의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체계이론에 접근시켜 여러 독립변수들을 검증하였지만 재무관리를 과정변수로 포함하여 분석된 연구는 몇몇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Mugenda, Hira, Fanslow, 1990; 김순미, 1993).

이에 본 연구는 연령, 교육, 소득의 인구통계적 변수와 소득적정도인지, 경기전망인지, 생활격차감인지를 재무관리자의 주관적 인지변수로 설정하여 투입변수로 하고, 재무관리는 과정변수로, 그리고 재정만족도는 산출변수로 하여 가계의 재무관리행동을 조사하는 한편, 이러한 제 변수들이 가계의 재정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재무관리의 개념화는 가정자원관리모형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자원관리개념은 Paolucci, Hall과 Axinn(1977), Gross, Crandall과 Knoll(1980), Deacon과 Firebaugh(1988) 등의 체계론, 그리고 체계론에 기초한 Avery와 Stafford(1991)의 계획적합성이론과 같은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하여 발달하여 왔다.

Deacon과 Firebaugh의 체계적 접근법에 의하면

산출인 가계의 만족도는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과정에 의해 향상될 수 있으며, 가계의 관리행동은 가계 구성원의 인지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계가 이용할 수 있는 자원과의 관계에서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산출인 가계의 만족도는 투입요소인 가계의 자원과 요구, 그리고 관리행동인 과정의 함수이다.

한편 Titus, Fanslow와 Hira(1989)는 Deacon과 Firebaugh의 체계적 이론을 가계재무관리에 적용시켰는데 투입은 목표와 사건에 대한 요구로서 이용할 수 있는 물적·인적 자원으로 구성되며 연령, 교육, 직업, 소득, 재무관리자의 지식이나 태도, 인지 등이 이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한 가계의 재무관리행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지표뿐만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 가치에 근거한 동기부여요소로서 가족원들이 바라는 가계의 경제적 조건이나 생활표준, 재정자원의 관리에 관한 심리적 성향으로서 가치 및 태도, 또한 가정환경에서 획득가능한 재정자원의 양과 질에 관한 인지등 주관적 지표를 이용한 분석이 필요하다.

## 1. 인구통계적 특성

연령의 증가에 따라 가계의 소득과 자산은 변화하게 되므로 연령은 경제적 복지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가 되는데, Sumarwan과 Hira(1993)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지고 재정관리에 대해 불일치를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의미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은 연구도 상당수 있는데(임정, 1988; 김숙이, 1988; 김연정, 김순미, 1991) 이는 연령변화에 따른 소득변화, 지출구조의 변화에 따라 재정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연구 결과가 상반된다고 하였다.

## 2. 주관적 인지변수

### (1) 생활격차감

생활수준 및 생활표준에 대한 기존연구는 각각의 개념(Schlater, 1970; Hefferan, 1971; Hahn, 1972; Hafstrom & Dunsing, 1973; 김순미, 1993)이나 재무

관리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생활수준 및 생활표준 개념, 그리고 영향요인(Danes & Morris, 1989)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Davis(1945)는 생활수준 및 생활표준의 개념을 구분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생활 수준은 개인이나 집단이 실제로 경험하고 즐기거나 또는 고통받는 것이다. 반면 생활 표준은 절박하게 바라거나 또는 노력하는 수준으로서, 만일 생활표준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좌절을 경험하지만 생활표준에 도달하는데 성공하면 만족을 느끼게 된다(Deacon & Firebaugh, 1988). 이처럼 가정내 변화를 위한 중요한 동기요소 중의 하나가 생활표준과 생활수준간의 격차에서 기인된 불만족이라는 점에서 생활수준 및 생활표준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Paolucci, Hall과 Axinn(1977)은 생활격차감의 개념을 현재의 실제상태와 어떠해야만 된다는 상태의 차이로 보고, 차이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면 개인은 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별로 수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Danes와 Morris(1989)는 가족이 자신의 재정상태를 변화시키고자 계획하는 요인으로 소비수준과 소비표준간의 차이를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차이가 가족의 재정상태에 대하여 불만족하는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생활격차감은 생활수준과 생활표준간의 격차에서 기인된 불만족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가정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투입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생활격차감은 재무관리 및 재정만족도의 영향변수로 설정될 수 있다.

### (2) 소득적정도인지

가계소득적정도인지는 규칙적으로 일정한 액수의 소득을 갖는 사람이 가계소득에 대한 안정성을 높게 평가하게 되어 가계소득을 높게 인지하며, 부부의 직업이 전문기술적인 경우에는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적절하게 소득을 인지한다고 하였다(Williams, Nall, Deck, 1976). 또한 소득적정도는 가정의 재정문제나 생활의 질과 관련이 깊은데, Hafstrom과 Dunsing(1973)은 일반주부와 저소득층 주부의 생활의 질에 대한 만족의 예측치를 연구한

결과 소득 걱정감이 생활의 질 만족에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Williams, Nall과 Deck(1976)의 연구에서는 소득걱정감과 가정의 경제문제 점수와는 부적 상관으로 소득 걱정감이 증가할수록 경제문제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umarwan과 Hira(1993)의 연구에서는 소득걱정도인자가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의 강력한 예측인자임을 밝혔다. 즉 동일한 정도의 자원을 지니고 있는 재무관리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경제복지를 달성하는데 적절한 자원을 인지하는 정도는 다르며, 자원을 적절하게 인지하는 재무관리자는 인지한 자원을 생활표준에 적절히 적용할 것이므로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도 달라질 것이다. IMF체제이후 많은 가계가 소득이 감소되었고, 물가상승이나 금리하락으로 소득효과는 훨씬 줄어들었다. 따라서 각 가계의 소득적정도 인지수준에 따라 재무관리와 재정만족도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 (3) 경기전망인지

가계의 경제적 지위는 시간적 차원으로 과거와 비교한 현재의 경제적 지위에 대한 평가나 현재와 비교한 미래의 경제적 지위에 대한 기대로 상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경기전망인지변수는 기존연구에서 경제생활 상승감, 경제적 기대감, 열망성취도(임정, 1988; 김숙이, 1991; 임정빈, 조미환, 이영호, 1995; 김정숙, 1996), 경제상태평가, 재정상태기대(이종혜, 1993; 김민정, 1995)와 기대성취도(임정, 1991; 김연정, 김순미, 1991)와 같이 다양한 개념으로 측정되어 왔다.

경기전망인지가 가계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유의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김연정, 1991; 이종혜, 1993; 고보선, 이영호, 1995; 김민정, 1995)와 유의한 효과가 없다는 연구(임정, 1988)가 있어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종혜의 연구(1993)에서는 일반가계의 경우 경제상태에 대한 평가가 경제상태에 대한 기대보다 주관적인 경제복지에 대한 설명력이 더 높았으며 Whifford(1993; 김민정, 1995)에서 재인용)의 연구에서는 과거 재정상태와의 비교변수가 경제적 지위 지표와 재정만족도에 큰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Davis 등(1985)은 이 경기전망인지 변수가 재정만족도의 약 29%를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변수임을 밝혔다.

### 3. 재무관리수준

가계의 재정상태, 생활수준 및 생활표준에 대한 파악은 재정문제를 규명하는 것이며, 이러한 규명을 통하여 가계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재정적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재무관리가 필요하다.

재무관리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재정적 불안정과 재정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1980년대 이후에는 재무 서비스의 방향 설정에 초점을 둔 재무 서비스 체계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대두되었다.

재무관리는 가계가 갖고 있는 재정적 목표가 무엇이며, 가계의 재정적 자원과 주변환경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재정적 자원의 구성 요소에 따라 각기 다르게 수행되며(Edwards, 1988), 가족 구성원의 특정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인적, 경제적, 환경적 자원을 분배 조정하는 목표지향적인 조직시스템이다. 재무관리는 첫째, 현실적이고 실행할 수 있는 전체적인 재정계획이 기초가 되어야 하고, 둘째, 계획을 유지할 만한 충분한 수입이 있어야 하며, 셋째, 지출에 대한 조정을 해야 함과 동시에, 넷째, 특별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Nickell, Rice & Tucker, 1976).

가계의 재무관리를 분석한 Titus 등(1989)은 체계적 접근방법으로 가계의 재무관리를 다루면서 변환 과정이 실제적인 재무관리로 구성되며, 예산수립, 가계부기록, 신용사용, 저축, 위기관리 등과 같은 실제적인 재무관리행동의 수행여부는 재정목표의 달성과 자원의 극대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가계가 재정자원사용을 계획하고 그 계획을 어떻게 수행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가계의 만족 혹은 효용이 증가되거나 감소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가계 재무관리행동은 가계복지나 재정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Fitzsimons, Hira, Bauer & Hafstrom, 1993). 성공적인 가계 재무관리

는 재정만족도를 향상시키며 이는 가족의 경제적 복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가족이 안고 있는 재정적 문제는 경제적 복지에 부적으로 관계하며 가족의 경제적 복지를 감소시킨다(김숙이, 1988). Williams와 Berry(1984)의 연구에서는 가계관리능력이 뛰어나수록 재정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경, 문숙재(1992)는 부부간의 경제적 갈등은 수입의 절대액수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금전사용방법, 소비유형, 주소득자 유형, 금전관리태도 등의 차이에서 유발된다고 보았으며 일반적인 의사소통과 재무관리에서의 갈등정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재정만족도가 낮았다고 보고하였고, 박미금(1993)의 연구에서는 남편의 가계관리 참여도가 높을수록 경제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4. 재정만족도

재정만족도에 관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연구를 보면,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도, 경제생활만족도, 재정관리에 대한 만족도 등으로 측정, 연구되어져 왔다.

김숙이(1988)의 연구에서는 사회심리적 변인 뿐만 아니라 가계소득, 부부의 교육수준, 남편의 직업 등 사회경제적 자원에 따라라도 경제생활만족도에 차이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선진국의 연구에서 사회경제적 자원이 사람들의 주관적인 경제적 복지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연구가 대부분인데 반해, 우리나라가 70년대에 들어와 기술·경제적 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절대적인 자원수준이 기본적인 가족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종혜(1993)의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과 순자산이 많을수록, 경제상태 평가와 경제상태 기대가 긍정적일수록 재정만족도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미금(1993)의 연구에서는 남편의 경우 가계 관리 참여도가 높을수록 경제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구통계학적 변수보다는 소득적

정도 등의 상황심리적 변인이 경제생활 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정(1995)은 재정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수립과 화폐관리 행동에 대한 평가가 잘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가계관리행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다양한 관련 전략들이 개발되고 사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재무관리와 재정만족도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Williams와 Berry(1984)는 남성이 재무관리 능력이 뛰어나수록, 결혼년수가 길수록 재무관리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인의 취업에 따라라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간제로 일하는 부인을 둔 남편은 전업주부의 남편보다 재무관리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은 부부간 의사소통의 빈도가 잦을수록, 미래의 재정적인 안정도를 높게 평가할수록 재무관리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주부가 전업주부보다 재무관리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부부간의 재무관리에 대한 만족도의 인지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Tergiolu와 Safak(1988)은 가계가 직면하고 있는 재정문제의 유형과 대처 전략에 관해 연구했는데 가계에 가장 큰 재정적인 어려움을 미치는 요인으로 는 직업문제를 들었으며 그 외에도 가족, 건강문제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으로 나타났으며 연구 대상 가정의 절반이상이 배우자가 재정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협조적이었다.

Mugenda와 Hira(1990)는 가계의 금전관리자는 재정적 문제에 대한 지식이 더욱 풍부하며 금전 문제에 대해 의사소통과 금전관리 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하였다. 또 재정 상태에 대한 만족은 순자산과 저축 등 경제적인 요소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으며 소득과 재정 상태에 대한 만족에 의해 생활의 질 만족이 예측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상의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재정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인구통계변수와 상황심리적 변수는 생활 격차감, 소득적정도인지, 경기전망인지, 그리고 재무관리수준을 포함시킬 수 있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인구통계적 특성과 주관적 인지변수(생활격차감인지, 소득적정도인지, 경기전망인지)수준에 따라 재무관리수준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인구통계적 특성과 주관적 인지변수(생활격차감인지, 소득적정도인지, 경기전망인지)수준에 따라 재정만족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재무관리수준에 따라 재정만족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4: 재정만족도와 관련된 제변인들과의 인과관계는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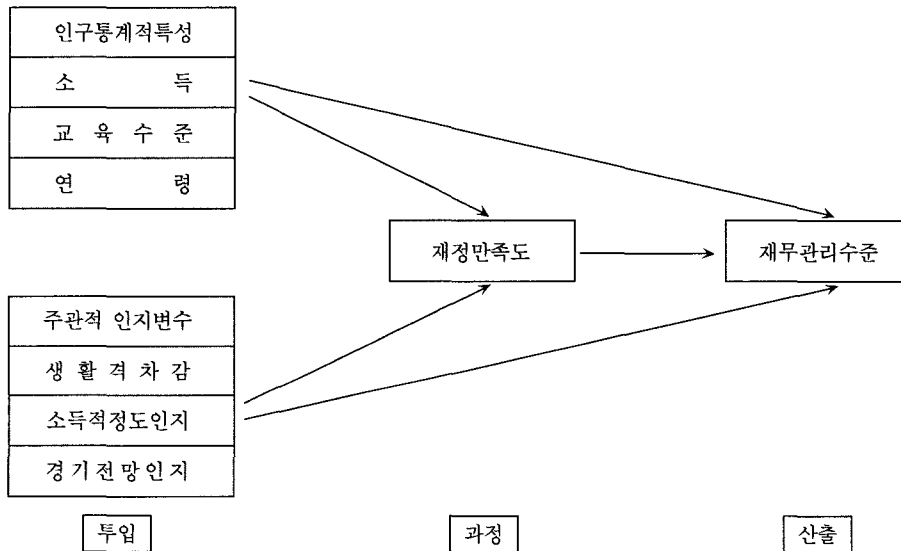
#### 2. 조사도구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질문지는 주관적 인지변

수로 생활격차감척도, 소득적정도척도와 경기전망인지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재무관리상태 및 재정만족도에 관한 척도와 인구통계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생활격차감 척도는 현재의 실제 생활수준과 이상적으로 바라는 생활표준간의 차이를 묻는 것과 우리나라 전체 생활수준평균과의 비교를 묻는 2문항을 5점 likert형식으로 작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격차를 높게 인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적정도에 관한 척도는 Wilhelm과 Iarns(1987), 김민정(1995)의 연구를 기초로, 가계소득으로 가정생활에 필요한 것을 살 수 있는 정도를 묻는 문항과 가계소득 및 자산이 얼마나 적절한가를 묻는 5점리커트척도의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경기전망인지는 경제상태기대나 경제수준 기대감을 측정한 Davis와 Helmick(1985), 임정(1988), 이종혜(1993) 등의 연구를 기초로, 현재와 비교하여 5년 후의 소득수준이나 경제수준이 얼마나 향상되리라고 인지하는가를 알아보는 2문항으로 5점 likert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계의 경제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 연구모형

재무관리수준에 관한 척도는 Godwin과 Carroll (1986), Fitzsimons 등(1993), 박미금(1993)의 연구를 참고로하여 목표설정, 소비표준 설정, 예산책정, 소득과 비용 평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계획부분과 소비자 구매, 가계부기록, 저축 및 투자, 소비습관 검토 및 평가 등의 수행부분을 나타내는 것으로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합리적인 재무관리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신뢰도 계수  $\alpha$ 는 .92다.

재정만족도 척도는 이중혜(1993), 김혜정(1995), Mugenda 등(1990), Danes와 Morris(1989)의 연구를 참고로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이 척도는 저축비율, 순자산, 비상준비금, 교육준비금, 주거, 노후준비금, 소득수준에 대한 만족도, 각 비목별 소비 지출에 대한 만족도, 전체 소비지출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15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신뢰도 계수  $\alpha$ 는 .83이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큰 것으로 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계관리자로서 주부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는데 표본추출방법은 임의추출방법을 택하였다. 주부를 대상으로 선정할 이유는 가정 내에서의 재무관리를 포함한 가정관리자는 일반적으로 주부이기 때문이다. 설문지는 1998년 6월 20일부터 7월 15일까지 총 350부를 배부하였으며 최종 316부가 회수되어 90.3%의 회수율을 보였으며 회수된 316중에서 부실기재된 것을 제외한 298부가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PC+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회귀분석, 경로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VI. 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특성

변 수	구 분	N (%)
가 계 소 득	100만원미만	21( 7.0)
	100-150 미만	58(19.5)
	150-200 미만	73(24.5)
	200-300 미만	97(32.6)
	300-400 미만	34(11.4)
	400만원이상	15( 5.0)
	계	298
교 육 수 준	중졸이하	31(10.4)
	고졸	121(40.6)
	대졸	106(35.6)
	대졸이상	40(13.4)
	계	298
소 득 적 정 도	부적절	51(17.1)
	중간	187(62.8)
	적절	60(20.1)
	계	298
	평균값	8.59
	중앙값	9.00
재 무 관 리 수 준	관리부적절	65(21.8)
	보통	172(57.7)
	관리충분	61(20.5)
	계	298
	평균값	41.43
	중앙값	42.00
연 령	20대	24(8.05)
	30대	123(44.3)
	40대	116(38.9)
	50대	24(8.05)
	60대이상	11( 3.7)
	계	298
생 활 격 차 감	적게느낌	70(23.5)
	중간	149( 50)
	크게느낌	79(26.5)
	계	298
	평균값	6.64
	중앙값	7.00
경 기 전 망 인 지	하락예상	43(14.4)
	중간	210(70.5)
	상승기대	45(15.1)
	계	298
	평균값	7.10
	중앙값	8.00
재 정 만 족 도	불만족	54(18.1)
	보통	174(58.4)
	만족	70(23.5)
	계	298
	평균값	43.08
	중앙값	43.00

가계소득은 대부분 150만원대에서 300만원에 분포하고 있으며 평균 가계소득은 236만원이다. 교육수준은 조사대상자의 76%가 고졸과 대졸에 분포했고 평균연령은 40.49세로 주로 30대와 40대에 분포하였다. 생활격차감의 평균값은 6.64이고 중앙값은 7.00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상적으로 바라는 생활표준과 실제의 생활수준간의 차이가 다소 있다고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상적으로 바라는 생활표준을 높게 설정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소득적정도인지의 평균값은 8.59로 중간적정도보다 약간 상회함으로써 대체적으로 적절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전망인지의 평균값은 7.10이고 중앙값은 8.00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비록 현재의 우리나라 경제상태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와 이에 따른 개인별 가계의 재정상황도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재무관리수준에 대한 평균값은 41.43이고 중앙값이 42.00으로 비교적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재정만족도의 평균값은 43.08이고 중앙값은 43.00으로 전반적인 재정만족도의 수준은 보통 정도였다.

## 2. 인구통계적 특성과 주관적 인지변수에 따른 재무관리수준

재무관리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를 보면 주관적 인지변수 중 소득적정도만이 재무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고 그 외의 변수와 인구통계적 특성은 영향요인으로 검증되지 않았다. 이는 도시가계의 관리자는 그들의 소득이 얼마나 적정한가 주관적으로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 지출의 구조를 줄이거나 변화시킴으로써 재무관리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인구통계적 변수에 대한 유의한 차이는 검증되지 않았는데 이는 경로모형을 실시한 Mugenda 등(199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 김순미(1993)의 연구에서는 금전제약, 생활수준 및 생활격차 등의

<표 2> 인구통계적 특성과 주관적 인지변수에 따른 재무관리수준

독립변수	b	$\beta$	t값
인구통계적특성	소득	5.408E-03	8.697E-03 .130
	교육수준	-1.204E-03	-1.079E-03 -.018
	연령	-.047	-.056 -.937
주관적 인지변수	생활격차감	.490	.101 1.464
	소득적정도	.714	.224 3.050**
	경기전망인지	.313	.071 1.161
상수	31.599		6.682***
N=298		R <sup>2</sup> = .053	F값 = 2.746

\*\*P < .01 \*\*\*P < .001

변수가 재무관리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이들 유의한 변수의 설명력이 불과 5.3%로 나타났기 때문에 생활격차감이 재무관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판단되지 않는다.

한편 농촌가정을 대상으로 연구한 임정빈 등(1995)의 연구에서는 교육수준과 경제적 상승감, 경제적 기대감이 재무관리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경제적 상승감과 경제적 기대감은 현재와 비교하여 5년후 경제적 여건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로서 본 연구에서는 경기전망인지와 같은 개념이다. 이와 같은 상반된 결과는 농촌가정의 경우, 기후나 경기변화에 따라 가정생산물의 양과 가격이 결정되고 소득변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무관리의 합리적인 수행이 요구되는 반면, 도시가계는 일반적으로 소득변화에 대한 예측이 가능함으로써 재정상태의 점검이나 재정목표의 재정립 등 재무관리가 일상적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영향 변수로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3. 인구통계적 특성과 주관적 인지변수에 따른 재정만족도

재정만족도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조사한 결과 소득, 교육수준, 생활격차감과 소득적정도인지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연령에 따라서는 유



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다(표 3). 본 연구결과는 선행연구결과(김정숙, 1996; 고보선, 이영호, 1995; 김순미, 1993, 박미금, 1993; 김숙이, 1988, Mugada, Hira & Fanslow, 1990등)와 대부분 일치해 보였지만 경기전망인지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는데 이는 현재 우리나라가 IMF체제로 겪고 있는 혼란한 경제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려된다. 즉 가계소득과 관련있는 직업이 경제적 불황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가에 따라 각기 기대하는 경기전망인지는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결과로 유의한 차이가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가계소득과 소득적정도인지는 재정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객관적인 자원의 양이 많을수록 그리고 주관적으로 적정하다고 인식할수록 재정만족이 큰 것으로, 가계소득이 많은 경우는 적은 경우보다 이용가능한 재정자원의 범위가 크므로 이로 인하여 재정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보여진다. 결국 실제적인 가계소득의 양도 중요하지만 이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느끼는 인지정도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즉, 아무리 소득이 많더라도 사치재이상의 소비를 요구하거나, 주관적으로 적다고 인지한다면 재정만족도는 낮아지게 된다.

교육수준과 재정만족도에 대해서는 일관된 결론이 내려져 있지 않은 상태인데, 학교교육은 인적자본 투자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며, 교육수준에 따라 직업이나 소득이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경제적 안정도나 재정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재정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적인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소득수준이 높기 때문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현실 속에서 기대수준이 상승하여 보다 나은 준거집단과 비교함으로써 심리적 박탈감을 느끼고 오히려 만족도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생활격차감은 재정만족도에 부적 관계로 영향력을 나타내어 이상적으로 바라는 생활표준과 현재의 실제 생활수준의 차이가 클수록 재정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인구통계적 특성과 주관적 인지변수에 따른 재정만족도

독립변수	b	$\beta$	t값
인구통계적 특성	소득	9.447	.133 2,760**
	교육수준	-.156	-.122 -2,902**
	연령	-.012	-.012 -.29
주관적 인지변수	생활격차감	-.606	-.110 -2,203**
	소득적정도	2.039	.562 10,595***
	경기전망인지	9.721E-03	1.956E-03 .044
상수	29.965		7.714***
N=298		R <sup>2</sup> = .507	F값 = 50.013

\*\*P < .01 \*\*\*P < .001

#### 4. 재무관리수준에 따른 재정만족도

재무관리에 따른 재정만족도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beta$ 값이 .264로 유의수준 P<.001에서 유의한 변수로 판명되어 재무관리를 잘할수록 재정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정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은 7%로서 낮게 나타나 다른 변수들의 탐색 및 검증이 요구된다.

앞에서 제시된 연구문제들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투입변수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변수들은 재정만족도에만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고 재무관리수준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같은 소득계층내에서 재무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높은 재정만족도를 갖고 재무관리를 못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재정만족도를 갖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소득수준을 상, 중, 하의 세 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별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이유는 본 연구의 이론적 근거로 제시한 체계론이 본 연구모형

<표 4> 통제집단 내에서의 재무관리수준에 따른 재정만족도

독립변수	통제집단	b	$\beta$	t값
재무관리수준	중간소득집단	.219	.235 2,760**	
	고소득집단	.416	.361 3,668***	
	낮은교육수준집단	.293	.274 3,105**	

\*\*P < .01 \*\*\*P < .001

〈표 5〉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표

변 인	(1)	(2)	(3)	(4)	(5)	(6)
(1) 소 득	1.000					
(2) 교 육 수 준	.100*	1.000				
(3) 소 득 적 정 도	.465***	-.002	1.000			
(4) 생 활 격 차 감	-.368***	.096*	-.542***	1.000		
(5) 재 무 관 리 수 준	.082	.011	.191***	-.031	1.000	
(6) 재 정 만 족 도	.422***	.120*	.684***	-.475***	.265***	1.000

\*P&lt; .05 \*\*\*P&lt; .001

에서 적용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그 결과 중간소득계층과 고소득계층에서 재무관리수준이 높을수록 재정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도 세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낮은 교육수준을 보인 집단에서도 소득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표 4). 결과적으로 같은 소득계층내에서 재무관리수준은 재정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며 이는 과정을 통해서 산출이 달라질 수 있다는 체계론이 적용되었다고 판단된다.

##### 5. 재정만족도에 관련된 변수들의 인과관계

앞에서 살펴보았던 연구문제들을 종합하여 재정만족도에 미치는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무의미한 경로는 배제하고 소득, 교육수준, 소득적정도인지, 생활격차감, 재정관리를 포함하여 새로운 모형으로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중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충족시키는지 검증한 결과 표준화된 잔차의 히스토그램이 정규분포에 가깝고, Durbin-Waston test에 의한 D-W계수가 1.95로 종속변수들간에 체계적인 상관관계가 없었다. 또한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 즉 다중공선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검토해본 결과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가 그다지 높지 않게 나타나 독립변수간의 독립성이 대체로 만족되었다고 할 수 있다(표 5).

경로분석결과 재무관리는 매개변수로서 유의한 의미가 나타나지 않았다. 단지 소득적정도인지에 의한 간접효과가 있었는데 소득적정도인지가 재정만

〈표 6〉 새로운 경로모형을 위한 회귀분석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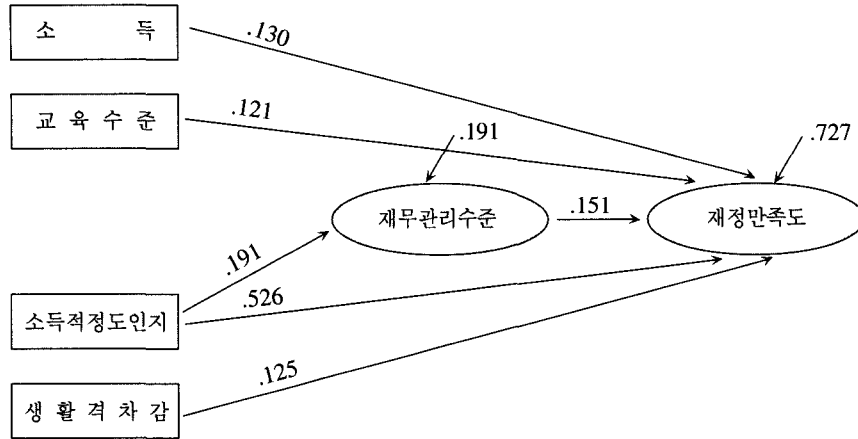
종속변수	독립변수	b	$\beta$	t값
재무관리수준 (R <sup>2</sup> =.039)	소득적정도인지	.608	.191	3.347***
	소득	9.254-E03	.130	2.821**
재정만족도 (R <sup>2</sup> =.529)	교육수준	-.154	.121	-2.982**
	소득적정도인지	1.909	.526	10.165***
	생활격차감	-.688	.125	-2.558*
	재무관리수준	.172	.151	3.678***

\*P&lt; .05 \*\*P&lt; .01 \*\*\*P&lt; .001

〈표 7〉 재정만족도에 대한 소득적정도인지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변 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소득적정도인지	.191	.151	.028

족도에 미치는 총효과를 분해해 보면, 직접효과는 .526이고 재무관리를 통한 간접효과는 .191과 .151을 곱한 값인 .028로서 인과적 효과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재정만족도에 대한 영향변수인 소득적정도는 재무관리를 통한 영향력보다는 직접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판명되었으며, 재무관리가 재정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알 수 있었고 소득이라는 자원의 증감, 교육수준 또 주관적 인지정도는 재무관리를 결정하는 선행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 재정만족도에 대한 경로분석결과

V.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재정만족도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상당히 진행되어 왔지만 사실상 재무관리라는 수행측면을 포함시켜 체계적 이론에 근거하여 조사한 연구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Mugenda, Hira & Fanslow, 1990; 김순미, 1993). 따라서 재정만족도에 대한 재무관리의 영향력이 어떠한지, 또 재무관리가 독립변수와 재정만족도간의 매개변수로 작용하여 재정만족도에 설명력을 얼마나 증가시키는지에 관해서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투입변수로 설정한 인구통계적 특성과 소득적정도인지를 제외한 주관적 인지변수는 재무관리에 직접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같은 소득계층 내에서 재무관리를 잘할수록 재정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같은 소득이라도 가정내에서 재무관리라는 수행과정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산출에 영향을 준다는 체계론 이론이 본 연구모형에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 재정만족도에 영향미치는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재무관리가 매개변수로는 유의한 의미가 없었는데 이는 소득이라는 자원의 증감과 그에 관한 심리적 인지변수가 재무관리의 선행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재정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소득적정도 인지, 재무관리수준, 소득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실질적인 교환수단이며 가치척도인 화폐소득을 어느정도 소유하고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이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어떻게 인지하고 어떻게 잘 관리·운용하느냐에 따라 재정만족도도 달라질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현재 우리사회는 높은 물가상승과 IMF체제이후 경제회생을 위한 자구책으로 금리인하정책, 정부 및 기업에서의 봉급생활자의 감봉정책, 경제불황으로 인한 실직등으로 효율적인 재무관리가 더욱 절실한 시기이다. 따라서 가계의 재정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재무관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재무계획이나 경기전망, 경제상황등에 따른 재무관리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가족생활주기는 단계가 증가할수록 생활규모가 커지고 자녀의 교육비 및 결혼비용 등으로 소득을 부적절하게 느끼게 되므로 경제생활 만족도가 낮아지기 쉬우므로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재정계획이라든가, 각 단계별로 합리적인 재무관리가 필요하다.

생활격차감은 재정만족도에 부적 관계로 영향력을 나타내어 이상적으로 바라는 생활표준과 현재의 실제 생활수준의 차이가 클수록 재정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생활격차를 줄임으로써

재정만족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경제복지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재정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재무관리가 요구되는데 박명희(1997)의 연구에서도 재정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재무관리의 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가계부사용유무로 나타나, 가계부를 쓸수록 재정만족도가 높아 효율적인 가계운영을 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즉 가계부사용이 재무관리의 필수적인 것이며 이는 재정만족도를 높이는 변수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계부사용을 포함한 재무관리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재정만족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복지향상을 가져오리라 기대된다. 또한 가계부사용교육과 더불어 구체적인 재무관리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이 소비자들의 요구도 조사를 기초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소비자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가정관리의 체계이론에 근거하여 투입, 과정, 산출을 인구통계적 특성 및 주관적 인지변수, 재무관리수준, 재정만족도로 설정하여 수행되었는데 제한점과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적정도를 제외한 다른 변수들의 재무관리에 대한 영향력이 미미하거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가지로 파악해 볼 수 있다. 우선, 현재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제상황을 고려해볼 때, IMF체제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소득의 변화를 경험하는 가계가 많아 가계소득과 심리적 불안정이 관련되어 도시가계들의 불안한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반면에 재무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다양하게 다루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자산이나 부채 등의 객관적 변수뿐 아니라 다양한 심리태도변수를 포함한 분석이 필요하다. 즉 어떤 가치를 갖고 가계소득을 어떻게 지출하는가, 물질주의에 대한 개인의 태도 또는 금전에 대한 태도 등과 관련지어 연구될 필요가 있다.

둘째, 재정만족도가 소득이나 소득적정도인지와 관련이 있는 본 연구결과를 볼 때, 소득의 양이나 증감여부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IMF체제 이후의 소득감소 혹은 실직 등으로 소득의 변화를 경험한 가계와 그렇지 않

은 가계의 재무관리행동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인구통계변수에 대해서도 소득을 주부자신의 소득, 기타가족원 소득 등의 가구원별로 구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연령을 첫 자녀 연령을 감안한 생활주기상으로도 구분하여 좀 더 세분된 인구통계변수의 설정이 요구되어진다. 또한 주부의 취업유무나 부채수준 등의 변수도 포함되어 후속연구가 수행된다면 재무관리교육시 그 대상선정이 용이하리라 판단된다.

## ■ 참고문헌

- 1) 고보선, 임정빈(1992), 가정경제안정도인지와 가정생활의 질 만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10권 2호, 191-208.
- 2) 고보선, 이영호(1995), 가정경제복지에 대한 객관적, 주관적 평가 변인의 영향력, 대한가정학회지, 제 33권 6호, 269-280.
- 3) 김민정(1995), 객관적 가계경제복지와 주관적 가계경제복지의 상호관계,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4) 김숙이(1988), 도시가계의 경제적 만족에 관한 연구, 이대석사학위논문.
- 5) 김순미(1993), 도시가계의 재정상태, 재무관리 및 재정적 만족의 관계분석: 체계론의 적용가능성 검토,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11권 2호, 195-207.
- 6) \_\_\_\_\_, 김연정(1991), 체계론적 관점에서 본 가정의 주관적 재정복지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103-118.
- 7) 김정숙(1996), 재정상황에 대한 인지도가 재정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권 6호, 405-419.
- 8) 김혜정(1995), 주부의 화폐관리전략과 재정만족도,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9) 박명희, 이승신, 박미혜(1997), 가계재무관리 software개발을 위한 연구(I), 대한가정학회지, 35권 1호, 85-98.
- 10) 박미금(1993), 부부의 경제생활만족도 비교분석, 숙대박사학위논문.

- 11) 이종혜(1993), 도시가계의 경제적 안정도와 재정 만족도,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12) 임정빈, 조미환, 이영호(1995), 농촌가정의 의사소통, 재무관리행동, 가정생활만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13권 제 3호, 156-169.
- 13) 주인숙(1995), 도시가계의 부채관리와 재정만족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4) Avery, R., Stafford, K.(1991), Toward a scheduling congruity theory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2(4), 325-344.
- 15) Beutler, I.F., Owen, A. & Hefferan, C.(1988), "The boundary question in Household production : A systems model approach," *Home Economic Research Journal*, 16, 267-278
- 16) Danes, S.M., Morris, E.W.(1989), The factors affecting a family's plan to change its financial situation, *Lifestyles: Family & Economics Issues*, 10(3), 205-215
- 17) \_\_\_\_\_, Rettig, K.D., & Bauer, J.W.(1991), "Locus of control, gap between standard and level of living, and satisfaction: a Path model",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9(4), 282-291.
- 18) \_\_\_\_\_, Rettig, K. D.(1993), The role of perception in the intention to change the family financial situation,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4(4), 365-387.
- 19) Davis, J.S.(1945), Standards and content of living,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35(1).
- 20) Davis, Elizabeth P., Helmick, S.A.(1985). "Family Financial Satisfaction: The impact of reference point",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4(1), 123-131.
- 21) Deacon, R., Firebaugh, F.(1988), Family Resource Management principles and application, 가정관리학연구회 옮김.
- 22) Edwards, P.(1988), Using a system framework for organizing family financial planning, *Journal of Consumer Affairs*, 22(2), 319-332.
- 22) Fitzsimmons, V.S., Hira, T.K., Bauer, J.W. and Hafstrom, J.L.(1993), Financial management: Development of scale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4(3), 257-274.
- 23) Godwin & Carroll(1986), "Financial management attitude and behavior of husbands and wives," *J.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0, 77-96.
- 24) Gross, H., Crandall, w., and Knoll, M.(1980), *Results of Family management*, 4th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25) Hafstrom, Jeanne L., Dunsing, M.M.(1973), "Level of Living: Factors influencing the Homemaker's satisfactio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2(2), 119-132.
- 26) Heffern, C.(1982), "Determinant and parten of family saving,"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1(1), 47-56.
- 27) Hira, T.K., Fanslow, A.M., and Titus, P.M.(1989), "Changes in financial status influencing level of satisfaction in Household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0(2), 107-121.
- 28) Mugenda, O.M., Hira, T.K., Fanslow, A.M.(1990), "Assessing the causal relationship among communication, money management practices, satisfaction with financial status, and satisfaction with quality of life," *Lifestyles: Family and economic Issues*, 11(4), 343-359.
- 29) Paolucci, B., Hall, O., Axinn, H.(1977), *Family Decision Making: An Ecosystem Approach*, New York: Wiley.
- 30) Sumarwan, Ujang & Hira, T.K.(1993), "the Effects of Perceived Locus of Control and Perceived income Adequacy on Satisfaction with Financial Status of Rural Household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4(4), 343-63.
- 31) Tergiolu & Safak(1988), Money use and purchase in wich the wife works: a Turkish example," *J.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2,

- 341-348.
- 32) Titus, P.M., Fanslow, A. M., & Hira, T.K., (1989), "Net worth and financial satisfaction as a function of household money managers' competenci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7(4), 309-318.
- 33) Varcoe, K.P.(1990). Financial events and coping strategies of household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4, 57-69.
- 34) Wilhelm, Mari S., Iams, Donna R. & Rudd, Joel, "Husband and wife agreement of indicators of objective and subjective economic well-being", Home Economic Research Journal, Vol.16, No.1, September, 1987, 13-22.
- 35) Williams, F.L., Berry, R.(1984), "Intensity of family disagreement over finances and associated factor",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8, 33-53.
- 36) \_\_\_\_\_, Nall M. & Deck P.Z.(1976), "Financial Problems of urban Famili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4(3), 185-196.